

# 정례브리핑

2020.9.18(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통일부 장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9.19 평양선언 2주년 기념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회담본부에서 '2020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일정만 공개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관은 오늘 오후 1시 3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되는 '2020 DMZ 평화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9.19 당일 정부차원의 행사는 없는지 하고요. 9.19 2주년 맞이 정부 입장, 통일부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9.19 당일 정부차원의 행사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말씀드리면 남북은 그동안 평양공동선언 및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고 봅니다.

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작년 같은 경우는 1주년 행사를 통일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올해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별...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장관께서 수요일에 판문점 현장에 가셔서 그간의 합의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그런 합의이행, 확고한 합의이행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저희의 메시지를 내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의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통일부에서 일각에서 나온 얘기인데 통일부에서 21년 동안 해온 북한 인권조사를 중단시켰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조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통일부가, 정부는 탈북민 입국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북한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하는 하나원 탈북민 교육생들이 조사 인원 중복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적응교육에도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금년부터 하나원 교육생 대상 조사인원을 30%

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이며, 현재 이를 수용한 기관들의 하나원 교육생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만, 특정 민간단체가 정부의 조사규모 축소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금년도 조사... 그럼에 따라서 금년도 조사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며, 이미 올해도 다른 기관들의 북한 인권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